

가정 예배 모범

- 2022_11_13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11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다니엘 6장 1~ 15절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다니엘을 시기한 총리들과 고관들은 왜 다니엘을 고발할 수 없었습니까(3, 4절)?

다니엘을 시기했던 총리와 고관들은 집요하게 그의 흠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니엘의 삶 속에서 그 어떤 허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맡겨진 모든 일을 충성되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다니엘을 보호하셔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과업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2) 왕 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명령을 아는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10절)?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주저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왕이 조서도 다니엘의 기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드린 기도는 바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다양한 고난과 위협이 다가왔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압도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